

“디자인비엔날레, 세계 속 K-컬처·K-민주주의 디딤돌”

우원식 국회의장은 “광주는 민주주의의 정신이 곳곳에 배어 있는 지역”이라며 “차별과 배제가 아니라 함께 어울리는 사회를 향한, 인권을 존중하는 민주주의 정신을 갖는 ‘포용 디자인’과 맞닿아 있다”고 말했다.

우 의원은 지난 5일 광주비엔날레전시관에서 전시 중인 ‘2025 광주디자인비엔날레’를 관람한 후 “광주디자인비엔날레가 광주를 넘어 대한민국의 품격을 높이고 세계 속으로 K컬처, K민주주의를 살려 나가는 디딤돌이 되기를 기대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우 의원은 이날 강기정 광주시장, 안도걸 국회의원, 조오섭 국회의장 비서실장, 윤병모 광주비엔날레재단 대표, 최수신 2025 광주디자인비엔날레 총감독 등과 함께 했다.

이들은 전시 작품인 포용디자인 35년의 여정-옥소와 스마트디자인, 모두의 일상에 따뜻함을 더하는 LG전자, 주디자인인인 흥원의 광주도시철도 포용디자인 프로젝트, 공간경험 확장을 위한 이(e)-모빌리

우원식 의장-강기정 시장, 광주디자인비엔날레 관람 시민 300여명과 광복 80주년 기념 다큐멘터리 감상도

터 모듈형 가전, 로봇 보조 엄지손가락 ‘세 번째 엄지(Third Thumb)’, 고령자 돌봄 로봇 ‘래미(Rami)’ 등을 살펴봤다.

우 의원은 관람에 앞서 방명록에 ‘민주주의와 광주정신, 광주디자인비엔날레와 함께 세계로!’라는 글귀를 남겼다.

우 의원은 이후 광주 동구 CGV광주금남로에서 고등학생과 교직원 등 시민 300여명과 함께 광복 80주년 기념 다큐멘터리 영화 ‘독립군, 끝나지 않는 전쟁’을 관람했다.

강기정 시장은 “중국 전승절에 다녀온 뒤로 곧바로 광주를 방문해주신 의장님께 감사드립니다. 5월17일 금남로에서 광주정신을 힘차게 외쳐주셨고, 5·18이 기념이 된 광주의 문화예술을 공유해주셨다”며 “광주정신이라는 특별한 이름을 가진 도시 광주의 포용정신이 더욱 널리 알려지길

바라는 마음을 담아 이번 전시를 준비한 만큼 의장님의 방문은 광주 문화예술 발전에 큰 힘이 될 것이다”고 밝혔다.

한편 ‘2025 광주디자인비엔날레’는 오는 11월2일까지 광주비엔날레전시관에서 관람객들을 맞이하고 있다. 올해 전시는 ‘포용디자인(Inclusive Design)’을 주제로 ‘너라는 세계: 디자인은 어떻게 인간을 끌어안는가’라는 내용으로 구성됐다. 디자인이 미적·기능적 차원을 넘어 모든 사람의 차이를 인정하고, 함께 살아가는 방법을 모색하는 사회적 역할을 조명한다.

전시는 세계관과 삶관, 모빌리티관, 미래관 등 4개 주제관으로 구성되며, 미국·일본·영국 등 19개국 429명 디자이너와 84개 기관이 참여했다.

양동민 기자 yang00@gwangnam.co.kr



강기정 광주시장(가운데)이 5일 광주를 찾은 우원식 국회의장과 광주비엔날레전시관에서 ‘2025 광주디자인비엔날레’ 전시를 관람하고 있다. 사진제공=광주시

청년·신혼부부 정착 유도 ‘전남형 만원주택’ 청사진 마련

도민 의견 수렴 등 거쳐 최종 입주자격 확정 예정 10월부터 홍보 강화·내년 하반기 진도군 첫 입주

전남도가 청년과 신혼부부의 안정적 주거 지원과 지역 정착 유도를 위해 추진하는 ‘전남형 만원주택’의 입주자격(안)을 마련하고, 도민 의견 수렴에 나섰다.

7일 전남도에 따르면 전남형 만원주택은 넓은 면적의 신축아파트를 건설해 월 1만원의 임대료로 청년과 신혼부부에게 제공하는 전국 최초의 획기적 주거모델이다.

단순히 저렴한 임대주택 공급을 넘어 10년 뒤 지역에서 내 집을 마련할 수 있는 4인 가족으로 성장하도록 돕는 것이 목표다.

이번 입주자격(안)은 그동안 도내 인구감소지역 16개 군과 청년, 지역사회보장협의체 등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해 마련된 초안이다.

입주자격안을 살펴보면 청년은 18세 이상 45세 이하의 무주택자 가운데 전남에 근무하거나 창업을 준비하는 사람, 농·어·임·축산업 종사자, 예술인 등이 해당된다.

청년은 기준 중위소득 170% 이하 조건을 충족해야 하며, 최초 4년 계약 후 연장을 통해 최대 6년간 거주할 수 있다.

신혼부부는 혼인 7년 이내이거나 6세 이하 자녀가 있는 가정, 예비 신혼부부도 입주 대상에 포함된다.

소득 기준은 외벌이는 기준 중위소득의 150%, 맞벌이는 180% 이하로 설정됐다. 특히 자녀를 출산할 경우 자녀 1명당 3년씩 거주기간이 연장돼 최대 10년간 거주할 수 있어 결혼과 출산을 적극 장려하는 효과가 기대된다.



전남형 만원주택(고흥) 조감도

이번 기준에는 전남형 만원주택만의 차별화된 운영 방안도 담겼다. 가정어린이집 운영자를 반드시 1호 배정에 육아 친화적 환경을 조성하고, 자립준비청년이나 예술인을 배정에 관리비 절감 효과를 높이기로 했다. 이들은 청소·안내 등 관리 업무를 맡게 된다. 입주된 부담을 줄이는 동시에, 사회적 약자에게도 새로운 일자리를 제공하는 효과가 기대된다.

또 청년 2인 이상 공동생활 가구, 신혼부부 다자녀 가구 등 정착 가능성이 높

은 계층을 우선 공급 대상으로 지정해 지역사회에 활력을 불어넣는 데 중점을 뒀다.

최종안은 전남도 누리집 공고와 8개 권역별 주민설명회를 통해 도민 의견을 폭넓게 수렴할 예정이다.

이후 제기된 의견을 종합 검토해 전남도 주거정책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최종 확정된다.

전남도는 오는 10월부터 전남형 만원주택에 대한 도민 홍보를 강화하고, 2026년 하반기 진도군에서 첫 번째 전남형 만원주택 입주를 시작할 계획이다.

김영록 전남도지사는 “전남형 만원주택은 단순히 임대료가 저렴한 집이 아니라, 청년과 신혼부부가 안정적으로 뿌리 내리고 미래를 설계할 수 있는 주거 플랫폼이다”며 “도민 의견을 충분히 반영해 현실적이고 지속가능한 주거 모델로 만들겠다”고 말했다.

박정렬 기자 holbul@gwangnam.co.kr

이병훈 호남특위 부위원장 ‘토크콘서트’

‘지역이 강해야 대한민국이 산다’ 출판 기념회도

이병훈 더불어민주당 호남발전특별위원회 수석부위원장(전 국회의원)이 지난 6일 김대중센터에서 토크콘서트를 성황리에 마쳤다.

‘지역이 강해야 대한민국이 산다’의 저서 출판 기념회를 겸한 이날 행사에는 강기정 광주시장과 호남발전특별위원장인 서삼석 민주당 최고위원, 양부남 민주당 광주시장 위원장, 이계호·신정훈·조인철·박규택 국회의원 등 정·학·계·시민사회·문화·종교계 인사들이 참석했다.

이 자리에서 정태래 민주당 대표는 축하 영상을 보내 과거 국회에 이재명 대표의 체포 동의안이 청구됐을 당시 이병훈 전 의원이 첫 번째로 나서서 체포의 부담함을 알리고 부결돼야 함을 역설했던 국회의원임을 밝히며 그의 출판 토크콘서트를 축하했다.

우원식 국회의장도 축하 영상을 보내 이번 출판 토크콘서트가 광주·전남 발전의 새로운 계기가 되길 바란다 고 밝혔다.

또 서삼석 최고위원은 “당대표가 이

병훈을 왜 호남특위 수석부위원장으로 임명했는지 이 책을 보아야 할 것이다”고 밝히고 출판기념회의 의의를 더했다.

박규택 국회의원(국회 법사위)은 “이병훈의 문화예술에 대한 전문성을 최대한 살려야 한다”며 “책에 나와 있는 내용을 의정활동에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주문했다.

한편 이 수석부위원장의 이번 토크콘서트는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출마를 알리려는 성격이 강하다.

이 수석부위원장은 이번 책에서 주먹밥과 막걸리와 같은 작은 요소들부터 시작해 인공지능과 같은 거대 이슈에 이르기까지 그의 향후 활동 방향을 가능할 폭넓은 의제를 다루고 있다. 한편 이 수석부위원장은 행정고시로 행정에 임문해 청와대, 전남도, 국가균형발전위원회, 행복도시건설청, 문체부 등을 거쳐 광주시문화경제부 시장을 역임했고, 제21대 국회의원 때에는 아시아문화도시특별법을 개정하고 밝혔다.

정승기 기자 sky@



이병훈 더불어민주당 호남발전특별위원회 수석부위원장이 지난 6일 김대중컨벤션센터에서 토크콘서트를 성황리에 마무리했다.

광주여성가족재단 대표 인사청문특위 본격 가동

광주시의회는 지난 5일 광주여성가족재단 대표와 광주테크노파크 원장 인사청문특별위원회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선임하고, 본격적인 활동에 나섰다.

광주여성가족재단 대표 인사청문 위원장에는 최지현 의원, 부위원장에는 이명노 의원, 위원에는 김나운·박희용·서용규·임미란·정다은 의원이 각각 선임됐다.

광주테크노파크 원장 인사청문 위원장에는 박필순 의원, 부위원장에 서임석 의원, 위원에 강수훈·김용인·박미경·박수기·심창욱 의원이 맡게 됐다.

광주여성가족재단은 여성가족정책을 개발하고 양성평등사회 실현과 복지 증진을 위해 2011년에 설립됐으며, 광주테크노파크는 지역 벤처중소기업, 대학교 등과 연계해 연구개발과 산업화를 통한 시너지 효과를 창출하기 위해 1998년에 설립된 지역의 대표적인 출연기관이다.

최지현 위원장은 “여성가족재단은 성인지 감수성을 향상하기 위한 다양한 사업을 통해 지역사회와 공감하는 성평등 플랫폼 조성에 앞장서고 있다”면서 “정책 환경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해 ‘양성평등 광주공동체 실현’에 보다 적극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승기 기자 sky@gwangnam.co.kr

광주 대인야시장, 가을밤 풍성한 예술밥상 차린다

시, 11월 22일까지 매주 토요일 밤 총 10회 운영 부영이 모양 아올리뽕·말차막걸리 신메뉴 첫 선

광주의 대표 문화축제인 ‘대인예술야시장’이 가을밤 풍성한 예술밥상을 차린다.

광주시는 오는 11월22일까지 ‘2025년 하반기 대인예술야시장’을 총 10회 운영한다. 매주 토요일 오후 6시부터 10시까지 진행된다. 다만, 추석연휴인 오는 10월 4일과 11일 운영하지 않는다.

9월 야시장에서는 상인 품평회를 통해 선정된 신메뉴 첫선을 보인다. 또 대인예술야시장 캐릭터인 부영이모양의 ‘아올리뽕’과 ‘말차막걸리’도 공개된다.

9월 대인예술야시장은 세계양궁선수권대회를 기념하는 가상현실(VR) 양궁체험, 케이(K)-뷰티 열풍을 반영한 ‘1만원 뷰티 프로그램’(네일아트, 페이스메이킹, 메이크업 체험) 등 다양한 참여형 콘텐츠로 채워진다.

시장 전체가 예술 놀이터로 탈바꿈한다. 광주디자인비엔날레 개막에 맞춰 야시장에서는 공영주차장을 도화지 삼아 그리하는 ‘대인마당 스케치북’, ‘판화로 그리는 명작’, ‘구슬로 그려보는 추상화’, ‘뭇생긴 초상화-1분 캐리커처’ 등 다양한 예술 체험 프로그램도 진행된다. 체험에 참

여한 방문객에게는 ‘예술체험 스텝프 투어’를 통해 부영이 캐리커처 열쇠고리를 기념품으로 제공한다.

또 ‘한평갤러리 관람→레지던시 작가 투어→마당의 굿즈 만들기 체험’ 코스로 구성된 ‘대인예술주간 투어’도 마련된다. 사진 예약제로 운영되며 광주디자인비엔날레 관람권을 소지한 신청자는 무료로 굿즈 만들기 체험이 가능하다.

한평갤러리 1관에서는 오는 13일부터 20일까지 어린이 여름미술대회 수상작 전시가 열린다. 대인예술야시장 부영이 캐리커처의 탄생 이야기를 어린이의 시선으로 풀어낸 작품들을 만나볼 수 있다.

한평갤러리 2~3관에서는 9월 한 달 동안 ‘대인마당 스케치북’, ‘판화로 그리는 명작’, ‘구슬로 그려보는 추상화’, ‘뭇생긴 초상화-1분 캐리커처’ 등 다양한 예술 체험 프로그램도 진행된다. 체험에 참

양동민 기자 yang00@gwangnam.co.kr

별한 예술 경험을 선사한다. 대인예술야시장은 오후 6시부터 남녀노소 누구나 즐길 수 있는 공연이 시장 곳곳에서 펼쳐진다.

공영주차장 메인 무대에서는 통기타 라이브, 어쿠스틱 듀오 공연, 버블 매직쇼, DJ이(DJ) 무대가, 국밥거리 사거리에서는 몽골 마두금 연주와 시민참여형 버스킹 공연이 이어져 전통시장의 밤을 감성으로 물들인다.

13일 대인예술야시장 공영주차장 주무대에서는 ‘KIA 타이거즈-LG 트윈스 프로야구 경기’가 실시간 중계된다. 이날 KIA 타이거즈 유니폼 착용 관람객에게는 신메뉴 시식 쿠폰이 제공된다. 야구와 예술이 만나는 이색 경험을 통해, 야시장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을 예정이다.

자세한 내용은 대인예술야시장 공식 누리집(www.아올리대인.kr)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전화 문의(062-233-0270)도 가능하다.

전은옥 문화체육실장은 “대인예술야시장은 예술성과 대중성을 동시에 확보한 지역 대표 야간 관광 명소로 자리잡았다”며 “새로운 먹거리와 예술 체험으로 채워진 대인예술야시장에 대해 많은 시민의 관심과 참여를 바란다”고 말했다.

양동민 기자 yang00@gwangnam.co.kr

민주당 평당원 최고위원 후보 4명 압축

9~10일 투표...박지원·이세미·정민철·한진희 후보

더불어민주당은 7일 평당원 최고위원 선출을 위한 경선에서 후보 4명을 결선 진출자로 추렸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전남 경기도 일산 컨텍스에서 열린 공론화 조사에서 후보 12명을 상대로 경선 발표와 조별 및 종합 토론 등을 거쳐 최종 후보군을 선정했다.

결선 진출자는 박지원·이세미·정민철·한진희(가나다순) 후보다.

정 후보는 이계호 의원일 인턴 출신으로 2001년생(24세) 청년이며, 한 후보(1995년생)는 시사발전소 편집장을 맡고 있다.

민주당은 온라인 토론회·합동 연설회(9일)와 전 당원 투표(9~10일)를 통해 평당원 최고위원을 최종 선발한다.

앞서 8·2 전당대회에서 당선된 정태래 대표는 당원 주권 정당 실현을 이유로 들면서 평당원을 최고위원으로 선출하겠다고 공약했다.

이성오 기자 solee235@